

# *Biography*

최혜심

Choi, Hyesim

2024



# 최혜심 (崔惠深 / Choi, Hyesim)

경주 출생, 대구에서 성장

대구대학교 조형예술학 석사 졸업 (회화 전공)

서독 Hochschule Kaiserslautern (실내건축 전공)

서독 Hochschule der Bildenden Kunst Saar (미술 전공)

## 개인전

- 2024 최혜심전, 라메르, 서울
- 2024 최혜심 초대전, 예송갤러리, 대구
- 2022 파라과이 국립 미술관, 아순시온, 파라과이
- 2019 SM Seaside City Cebu 백화점, 세부, 필리핀
- 2018 인사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7 Muhlen Museum, 하노버, 독일
- 2016 세종호텔 세종갤러리, 서울
- 2015 ACAP 2015,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5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4 대구문화재단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 2013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3 향암미술관, 울진
- 2012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2 Istanbul Besiktas Belediye Museum of Art, 이스탄불, 터키
- 2011 갤러리 소나무, 대구
- 2011 홍콩중앙도서관, 홍콩
- 2010 우봉미술관, 대구
- 2009 KPAM,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8 갤러리 소나무, 대구
- 2007 대구백화점갤러리, 대구
- 2007 웨이하이국제전시센터, 웨이하이, 중국
- 2006 호당미술관, 영천

## 아트페어

- 2023 키아프(KIAF), 코엑스, 서울
- 2023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 2022 키아프(KIAF) 아트서울, 코엑스, 서울
- 2013 경주아트페어 초대특별전, 경주실내체육관, 경주
- 2013 홍콩아트페어(AIAA), 구룡만 국제전시관, 홍콩
- 2013 아시아호텔아트페어(AHAF), 상그릴라 호텔, 홍콩
- 2012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코엑스, 서울
- 2012 부산국제아트페어(BIAF), 벡스코, 부산
- 2011 상하이아트페어, 상하이국제무역센터, 상하이, 중국
- 2010 홍콩모던아트페어, 홍콩중앙관람청, 홍콩

## 주요단체전

- 2024 마음의 풍요로움을 찾아서,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24 찾아가는전시 만나, 장애인종합 복지관, 평택
- 2024 동동친구전, 마루아트센터, 서울
  
- 2021 봉산문화회관, 봉산문화거리, 대구
- 2020 삶-회상전, 아양아트센터, 아양갤러리, 대구
- 2018 미술세계 기획 시인 김월수가 만난 화가전, 갤러리미술세계, 서울
- 2018 실크로드 유럽·일본·한국전, 베이징 1503 미술관, 베이징, 중국
  
- 2014 동남미술협회 40주년 기념초대전, 타이페이문화중심, 타이완
- 2014 대구문화재단 별난이야기전,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 2014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13 서양화 4인전, Comet갤러리, 대구
- 2013 경북미술 오늘의 동향전, 향암미술관, 울진
- 2013 현대미술 20인 조망전, 예일화랑, 서울
- 2013 국제 Art Club Comet전, 인터불고호텔 프라도 미술관, 대구
- 2013 대만·한국 국제교류전,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 2013 영호남 교류 희망나눔전, 대구예술문화회관, 대구
- 2013 글로벌갤러리 개관기념 현대미술 작은그림전, 글로벌갤러리, 서울
- 2013 대구시 열린 예술장터전,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 2013 경산예술제 초대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13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12 하와이모던아트페스티벌, 호놀룰루, 하와이
- 2012 한미 국제교류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2 한국·터키 국제 현대미술제, 앙카라 국립현대미술관, 앙카라, 터키
- 2012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12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구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11 THANK YOU WALES전, 웨일즈 순힐교회, 카디프, 영국
- 2011 국제현대미술제, 인사동 서울미술관, 서울
- 2011 김귀순갤러리 기획초대전, 김귀순갤러리, 대구
- 2011 인사동화랑축제 기획전, 신상갤러리, 서울
- 2011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11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구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0 국제태양미술제 초대전, 오사카, 일본
- 2010 동우갤러리 개관기념 대구시 중견 여류작가 초대전, 동우갤러리, 대구
- 2010 한국미술전, 전북예술회관, 광주
- 2010 그림사랑전, 영천창작스튜디오, 영천
- 2010 한국전업작가 대작 기수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10 한마음아트페스티벌,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10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10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구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9 Comet 국내작가 기획초대전, 동아백화점미술관, 대구
- 2009 한국미술대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09 국제 Art Club 기획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09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09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구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8 시공의 벽을 넘어서,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08 호주·중국·대만·일본·한국 국제미술단체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08 대구의 어제와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8 조망과 형상,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08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08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구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7 한국예술작품 수작전, 후쿠오카공항, 후쿠오카, 일본
- 2007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07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구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6 경상북도교육청 초대전, 경북교육청정보센터, 경산
- 2006 봄의정원전, 동아백화점미술관, 대구
- 2006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06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구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5 한일국교정상화40주년 기념 요코하마 국제미술페스티벌, 요코하마, 일본
- 2005 대구회화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5 한국미술협회 경산지부정기전, 경산시민회관, 경산
- 2005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구정기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5 호당미술관 입주작가전, 호당미술관, 영천
  
- 1980 Evangelish Kirche 특별전, 홈부르크교회, 서독
- 1978 경상북도대전 수상자전, 대구시민회관, 대구
- 1977 전국디자인공모전 수상자전, 대구시민회관, 대구

## 주요활동

삼성현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국제 Art Club Comet, 한국미술협회회원,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

## 홈페이지 / 연락처

홈페이지. [hyesim.com](http://hyesim.com)  
 이메일. [hyesim\\_choi@naver.com](mailto:hyesim_choi@naver.com)  
 연락처. 010-3810-6610

#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칠고 몽환적인 풍경

- 최혜심의 근작들 -

김종근 (미술평론가)

예술가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다. 야수파 화가 마티스에게는 상상력을 주장했던 구스타프 모로가, 사물이나 자연을 상상력의 눈으로 보라는 조언으로 그는 색채의 마술사가 될 수 있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던 사상가 장 자크 루소처럼, 자연밖에 다른 스승이 없던 앙리 루소.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상상으로 찾아 열대 밀림의 풍경을 독창적으로 창조할 수 있었다. 자연만이 진실하다며 풍경 그대로를 찾아 나선 밀레에게 자연이란 곧 최고의 스승이었다.

그렇다면 최혜심 작가의 선생님은 누구일까? 그녀에게 미술을 지도했던 교수들, 독일 유학에서 얻은 기술도 있었겠지만, 그녀에게도 최고의 스승은 역시 자연이었다. 초기 작업에서부터 그녀는 숲이나 자연의 매혹적인 풍경을 때로는 환상적으로 더러는 몽환적으로 그려냈다. 물론 초기의 작품에서 독일 유학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제는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아왔다. 그것은 봄날의 풍경이었고, 때로는 여름처럼 시원하고, 어떤 그림은 바닷속 정경처럼 투명하거나 꿈속 같았다. 그러나 그 풍경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 마음속의 풍경, 동양화처럼 사의(寫意) 그 자체였다. 계절도 사계절을 찾아보기보다는 마치 꿈속의 오로라 풍경과 다르지 않았다. 환상적인 핑크빛 색채와 작은 꽃잎의 형태들이 거대한 화폭에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리거나 춤을 추듯 어른거렸다.

근래 5-6년 전의 작업 풍경은 더욱 그랬다. 맑은 날 찬란하게 빛나는 숲의 모습인가 하면, 무지개가 얼룩지는 햇빛에 들켜 유리구슬처럼 빛나는 신비한 축포처럼 격하게 닳아있었다. 그의 작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치 하늘에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련하거나 호수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싱그러운 풍경이 충만했다. 색채도 푸른색, 보라색, 붉은 색등 다채로웠다. 창문을 열면 봄날에 꽃들이 폭죽처럼 휘날리는가 하면, 혹은 은하수인가 온통 꽃잎들이 넘실거렸다. 그러나 맑은 밤하늘에서 만난 별들처럼 그림들은 저마다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다. 그가 화폭에 뿌려놓은 꽃들은 무지개구름처럼 두둥실 떠다니거나 숨이불처럼 폭신 거리기도 했다. 또 다른 꽃을 수놓은 작품은 많은 수국의 꽃뭉음이 되어 엄마 품의 꿈속처럼 포근하다.

2017년 전후한 작품에서 작가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화면 속에 한글로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써넣어 화폭에 메시지와 조형적인 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만큼 작가는 색채와 메시지를 통하여 회화의 하모니를 전달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이것으로 화면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감정과 생명력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어쩌면 작가는 꽃 이미지와 무드를 통해 정서적 평안을 얻고 생명의 희열을 추구하는 사랑과 행복의 에너지를 그림에서 직접 말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의 풍경은 실제 존재하는 풍경보다는 언제나 상상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색으로 화면을 채운다. 그녀의 고백은 이러한 작가의 심경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과의 외롭고 긴 싸움이다”.

나는 내 그림에서 캔디 같은 새콤달콤한 맛을 느끼고 꽃향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그녀의 화폭에는 그런 새콤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다. 화폭 속에 작가가 일상적인 삶에서 갖는 감동과 기쁨, 슬픔, 행복을 담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것으로 충분히 확인된다. 창작을 할 때의 즐거움과 기쁨이 화폭에 채곡 채곡 이미지들이 쌓여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그의 예술 행위의 열매인 것이다.

최혜심 작가의 욕망은 그의 그림이 시대의 일시적인 유행이나 흐름과 주류에 흔들리기보다는 순수한 감정 표현에 도달함으로써 자신의 화풍이 구축되길 강렬하게 소망했다.

작가는 특히 독일 유학 이후 몇 번의 작품세계의 변화를 추구했다.

2010년경에는 아련한 형상으로 화면을 장식하던 시기에서 텍스트를 끌어 들이기도 하고, 2013-4년에는 화면에 꽃 묶음을 채우듯 환상적인 색채로 화폭을 완성하면서 구체적인 형상의 꽃과 나무 풍경을 담아냈다. 이렇게 2010-17년을 전후한 작품에서 보이는 사랑이라는 텍스트의 화폭에의 인용이 그러한 형식이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통하여 그가 말하고 싶어 했던 사랑 즉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하나의 전달 형식이었다.

나는 최근 최혜심 작가의 <일상의 기억 속에서> 작품 시리즈야말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력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100호 정도의 대작인 <일상 기억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근감이 있는 풍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모티브 상로나 형식상으로는 봐도 이 작품은 하나의 풍경화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아련한 풍경이 펼쳐진다. 구체적 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거칠게 생략된 풀잎들, 공간과 여백을 압도하는 긴장감 있는 화면구성이 단연 눈길을 끈다. 추사의 세한도를 본 느낌이 이러했을 것이다. 적어도 풍경화에서 이런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회화의 승리이자 표현의 탁월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실적인 들판이나 숲의 모양도 묘사도 없이, 그러한 멋진 풍경을 보는 듯했다면, 향유 할 수 있다는 것은 최혜심 작가의 최고의 예술가적 덕목임 분명하다.

명료한 감정으로 풍경의 다양한 표정을 다루는 이 시리즈가 최혜심 작가에 또 다른 전환의 세계가 될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밀레의 자연을 넘어선 새로운 자연주의의 풍경화를 이룩하는 최혜심 스타일의 작품이 창조되어 우리를 오랫동안 즐겁게 감동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 Artist Note

- 작가노트 -

자라면서 운동이면 운동, 노래, 무용, 그림, 글쓰기도 남들에 빠지지 않고 잘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만큼 잡기가 많았다. 공책마다 만화 그림을 그려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쉬는 시간이면 만화 그려 달라고 친구들이 줄서기도 했다. 교내외 미술 실기대회에서 여러 번 상을 차지하다 보니 자연스레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다.

나는 정물, 인물, 풍경도 잘 그린다. 추상, 구상을 넘나들며 가슴이 울리는 대로 그렸다.  
한가지 테마로만 절제하고 싶지 않았다.

물론 나만의 색채와 경향이 다져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가슴 뛰는 대로 그린 그림이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싶었다.

주위에서는 내가 화가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고 묻는다. 처음에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추상화? 구상화?  
지금은 이렇게 대답한다. 감성적 그림 그린다고, 나는 감성주의라고.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영감이 떠오르면 캔버스에 바로 작업한다.  
동그라미를 상상하며 그리다 마무리는 세모로 변하기도 한다.  
수채화도 재미있고 나를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유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작품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래오래 보관되기를 바라는 내 편견에서다.

내 작품이라도 꼭 같이 모조 되지 않는다.  
유화이면서 수채화보다 더 맑고 투명한 색감은 그때의 감정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시간이고 나의 역사가 된다.

나의 작품은 또한 빛에 따라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다르다. 파스텔 톤의 미묘한 색이 자연광과 조명등, 어떠한 빛을 품느냐에 따라 색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창작과 나만의 유일성 사이에서 머리로는 누구나 공감하고 시대가 인정하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가슴으로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얼마 전에 한 평론가 선생님께서 작업실을 찾아 주셨다. 역시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내가 가진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그림 열 점만 그려보면 좋겠다는 조언도 했다.

보다 젊었을 때 이것 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 사회활동도 에너지 넘치게 했다.

지금은 잘 할 수 있는 것만 해야겠다는 생각에 욕심내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나의 작품세계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가지도 치고 한 줄기에서 붉게, 푸르게 집중해서 표현을 승화시켜 봐야겠다.

늘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감사한다.

오늘은 꽃이 되고 내일은 물이 되고 가끔은 시리도록 아름다운 들판을 바라보는 황혼녘 하늘도 되었으면 좋겠다. 살아 숨쉬는 동안 많은 상념이 스쳐 가겠지만 오늘은 지금의 감정에 충실해보고

내일은 또 다르게 변화해가는 그때의 나에게 진실하리라.

2020. 10월에

작업실에서

2024

기억하고 싶은 것

*Things I want to remember*



햇살과 바람이 머무는 곳  
Places where the sunlight and the wind stay

hyesim.com